

눈앞의 현실이 세계의 민심을 뒤흔들어놓고 있다. 놀라운 시선들이 조선을 주시하는 가운데 제나라의 평등을 쏟아내는 국제보도계의 관심도 갖출 줄 모른다. 《과거지대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가 많은 나라들을 공략하고 있다.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60여개의 나라들이 려이어 (COVID-19)에 의하여 점령당하였으니 모든 서방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러나 전염병전국폭발도 둘러싸인 조국은 보기도 안보이지 않고 남이 있다.》, 《2003년 사스발생때에도 조선에서는 피해가 없었다. 결국 이것은 조선에서도 (COVID-19)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헛소문을 돌려놓는 것으로 된다.》, 《방역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걸잡지 못하는 전염병이 유독 조선에 들어오지 못한것은 특별한 주목을 끈다.》 ...

세계의 눈으로 볼 때 보타민이 어려운것은 이전의 전염병들에 비해 훨씬 강한 전파력으로 나날이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전염병임에도 혹여 어느 순간에 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은 커녕 오히려 생기발랄한 모습들뿐이라는 것이다.

모건이라든 누구에게나 자신의 운명을 대하여 생각해 되는 충격적인 계기가 있다. 바로 그런 시각에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하다면 이 땅에 펼쳐진 현실은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지금 이 시각도 세인의 눈길은 이 대답을 얻으려 한다. 세인을 놀래우는 락관성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알자면 서방의 한 백만장자의 심중의 언행을 살피기 필요가 있다. 언젠인가 그는 《당신은 행복합니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행복을 바란다. 때문에 나의 현생은 그 행복을 위한 처부로 흘러서 한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끊임없는 리움과 축적은 나에게 거대한 재부를 안겨주었고 백만장자라는 명성을 지니게 해주었다. 나에게는 가질수 없는것, 누릴수 없는 향락이 한 없다. 그러나 하고싶은것, 가질수 있는것을 다 이루고난 오늘 나는 내가 과연 행복하냐에 대한 물음에 선뜻 대답할수 없다. 왜냐하면 어제는 테로의 공포에 시달렸다면 오늘은 덩달아 무서운 전염병이 생명을 위협하기때문이다. 운명에 대한 위기를 피할수 없다고 생각하니 재부는 넘쳐나도 마음은 얼어있다.》

이런 문제를 또 언급해본다. 무릇 불행에 처했을 때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져든 사람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도와줄수 있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사람일것이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듯 가까운 친지 간이나 지은 퍼를 나는 혈육

간에도 줄수 없는것이 있다.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보살펴주고 지켜주는 품이 없다면 자기 운명도 자신의것으로 될수 없고 그런 나라에 남이 진정해 보금자리가 될수 없다. 역대의 재부속에 묻혀 살아도 불행하다. 바로 그처럼 크고 고귀한 믿음이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 억척부동으로 자리잡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구태여 숨기지 않고 있다. 여직 생활의 갈고갈고에 남아있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음모들은 불빛이 얼마인가를 놓고 조선을 비방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현란한 불빛에 있는것이 아니다. 호의로 보는 것과 그 속에 호의로 본질은 때로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적대세력들의 봉쇄와 압살책동은 계속되지만 놀라게도 이 땅에는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탄에 의한 살인공포증이나 전쟁공포증과 같은것은 국제소식에서나 보고듣는것으로 습관될만큼 최근한 안정이 깰어있는 땅이다.

참혹한 대재난의 시기에 행성의 이목은 조선에 쏠려 리곤 했다. 체제의 광란속에 서 보기도 듣지도 못한 신비한 화폭들만 펼쳐지기에, 줄지에 집을 잃고 환자에 나앉았어도 이 땅에서는 정

없이 해매는 괴난민이나 집을 잃고 절망에 잠겨 한숨을 쉬는 사람들도, 암마를 잃고 애처롭게 우는 아이들의 가슴저미게 하는 광경도 찾아볼수 없었다.

다른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백성이라는 이유로 재난의 물결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재앙의 주인공들이 만복의 주인공으로 그 처지가 바뀌어졌다.

인생길에는 때로 곡절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도 있다. 허나 진짜불행은 시련 그자체가 아니라 어려울 때 잡을 손길이 없는것임을, 더 나은 본능과도 같은것이 있다. 인민의 불행은 두고서는 배를 에이는 아픔에 잠 못 드시고 인민에게 필요한것이 있다면 억만자루 품을 들어 최고의 선물로 안겨주려 하는 것이 최고경도이다. 《조선은 이번 방역사업에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핵심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이 (COVID-19)에 대하여 관심이 쏠린것은 1월말 조선은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전염병을 전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킬수 있는 엄청난 문제로 간주하고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을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세계가 믿기 어려워하는것은 조선은 단 한번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가비상방역 조치들을 시시각각 취하고있는 것이다.》 ...

하나 누구도 이런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살아있다는것이라고 그렇게도 불행이같이 터놓으면서 심중의 사연을 사람들은 나날이 강대해지고 좁아지는 공화국의 모습에서 눈물겹게 새겨안았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다짐할수 없는것이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열사복무이다.

지금 이 시각에조차 슬하의 인민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억만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다짐한 녀려, 고마운 손길은 인민의 몸에 후텁게 와 닿고있다.

세계가 보고 느끼며 말한다. 《조선은 이번 방역사업에서 절대적으로 강력한 핵심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이 (COVID-19)에 대하여 관심이 쏠린것은 1월말 조선은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전염병을 전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킬수 있는 엄청난 문제로 간주하고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을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다.》, 《세계가 믿기 어려워하는것은 조선은 단 한번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확보하고 강력한 국가비상방역 조치들을 시시각각 취하고있는 것이다.》 ...

하나 누구도 이런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가 전염병충격에서 벗어 못나고있는 때에 수도의 한복판에 있는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최상급의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실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강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고 펼칠수 없는 인민을 위한 거창한 건설이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착공식장에서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하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이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중선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의료로, 선진적인 보건의료로 일떠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걸어야 한다.

그 연설은 인민사랑으로 시작되어 인민사랑으로 일관된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연설이었다.

끝없이 이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정성, 그 인정, 그 사랑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말밖에 할수 없는 이 나라 인민이다.

뜻을 따라야 참된 자식이요 그이만을 따르리라!

바로 이것이 돈으로도 흔들수 없고 그 어떤 《공포》로도 빼앗을수 없는 이 나라 인민의 강철한 지향이고 의지이며 배심이다.

인민의 감정은 불보다 뜨겁고 강철보다 굳센 혼연체제의 성세로 더 역세게 쌓아올렸다.

이 목숨같은 대가정의 혈액을 쏟아놓으려고 적대세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대결공세, 제재봉쇄, 《인권》소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이 나라 인민은 더욱 큰 활력과 무기의 담력을 가지고 거인의 기성으로 일떠선다. 더욱 큰 영향력과 위신을 가지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두각을 나타낸다.

비록 남보다 호강하지는 못해도, 설사 인생에서 뜻밖의 시련에 부닥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데 격정이 무엇인가, 원수님만 믿으면 모든것이 다 되는 법이라고 소심함이 러놓는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믿음은 공화국의 인민으로 하여금 고난속에서도 미래를 락관하게 하는 정신적재부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절대불변의 신념이다.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심장과 운명의 피를을 더 역세게 이었기에 천만의 심장이 내뿜는 예국의 열기는 참으로 뜨겁다.

일심의 정과 자강의 힘이 나날이 증폭되고있다.

강성변영의 설계 도우에 창조와 전변의 재부들을 가슴후련하게 얹으며!

본사기자 박영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가 전염병충격에서 벗어 못나고있는 때에 수도의 한복판에 있는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최상급의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을 현지에서 선포하시고 몸소 건설의 첫삽을 뜨실것이다. 이것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강진을 위한 일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고 펼칠수 없는 인민을 위한 거창한 건설이다.

그이께서는 뜻깊은 착공식장에서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울리는 연설을 하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자기의 본성으로, 신성한 정치리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것은 조건이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반드시 결머지고 실행하여야 할 최중선이며 또한 가장 영예로운 혁명사업으로 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보건을 인민적인 보건의료로, 선진적인 보건의료로 일떠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걸어야 한다.

그 연설은 인민사랑으로 시작되어 인민사랑으로 일관된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연설이었다.

끝없이 이어지고 베풀어지는 그 정성, 그 인정, 그 사랑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말밖에 할수 없는 이 나라 인민이다.

뜻을 따라야 참된 자식이요 그이만을 따르리라!

운명의 피 줄



건축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최근년간 공화국에 일떠서는 기념비적창조물들 하나하나가 다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평양권과 인민야외빙상장,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마시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삼마루락부, 유희야동병원, 류경치과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뿐만아, 지난 한해동안에만 해도 하늘아래 췌 동메인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자랑스럽게 일떠서고 북변의 동해기슭 중평지역에 대규모의 남새농산물농장이 꾸러졌으며 양덕은친문화휴양지가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로 완공되어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에서 단 몇해기간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놀라운것은 세계적수준을 통과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창조물들이 그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이 어리지 않은것이 없었다는것이다.

아는것처럼 건축은 조각과 벽화, 장식, 공예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분예술의 종합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다. 그래서 건축은 굳이언 음악이라는 말도 있는것이다.

하다면 사상에술성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완벽한 건축예술의 결과물들을 설계하고 구상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심원한것인가.

매혹과 흥미 건축의 영재

그 크나큰 세계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를 소개한다.

주제106(2017)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원인 홍봉희 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 나오시었다.

이미 건축연구원에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설비수단들을 보내주신 그이이시었다.

먼저 건축과학기술전시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전시한 자료들을 보아주시었다.

이때 류음식현시장지열에 대기하고있던 연구원의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류음식현시장을 가리켜드리며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는 건물정보모형화(BIM)에 의한 통합설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해드리었다.

그는 화면에 현시된 건축단면도작성설계도면을 가리켜드리며 BIM은 건물정보모형에 대한 물리적 및 기능적특징들의 수자적표현이라고 하면서 건물정보모형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급배수, 환기, 난방을 비롯한 린집도면들도 BIM으로 작성한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렸다.

한초가 천금처럼 귀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의 긴 설명을 다 들어주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돌려보시며 류음식현시

잘 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공간요상능력과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어느 한 건설대상의 실례까지 들어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새기는 교원들은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한생을 교단에 바쳐왔다고 자부하였지만 이렇듯 짧은 시간동안에 건축학의 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그 특징과 기초적인 문제에서 이르기까지 그처럼 간단명료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과연 무슨 말씀을 올릴수 있었으랴.

건축을 두고 시대의 발자취라고 했었다.

공화국의 건축물들이 자기의 사명과 성격, 기능적요구와 주변환경에 맞게 공간구성이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일뿐아니라 건축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정교하게 시공된것으로 하여 건축예술의 절정을 이루고있는것은 바로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끝없는 지성의 세계가 안아온 귀결이 아니겠는가.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에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을 주장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이처럼 탁월한 건축의 영재, 창조자의 거장을 모시여 공화국의 모습은 날마다 날마다 신비로운 황홀경을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오현주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구상과 실천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일관되어왔다.

그이께서는 세우시는 하나의 로선, 하나의 정책에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 리익이 반영되어왔다.

건축물을 하나 보시어도, 무엇을 하나 내놓으시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를 물으시며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를 할것을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 이것이 그의 신조이다.

주제101(2012)년 11월 어느날 준공을 앞둔 류경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원은 넓은 공간을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꽃장식도 아름답게 하고 원형의자도 특색있게 설치해놓는데 대하여 기뻐하셨다. 의자에 앉았어도 보시고 주단을 깔아놓은 바닥도 자세히 보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고급목재로 바닥처리를 더 잘해 주라고 하시었다.

대중들의 욕조에 손을

담그시고 물온도를 가능해 보시고 덕수의 수감부가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려설이 들리시어 려설의 온도를 잘 보장해주어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중요석한중간과 소나무한 중간에 들리시어는 의자배치를 더 잘하고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해서 이르시였으며 옷보관실을 돌아보시면서는 류경원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는것과 함께 목욕구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특별히 잘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 무엇을 하나 보시어도 인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마음쓰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은 삼지연에서 새로 건설된 대상들에도 깰어있었다.

수년전 삼지연관(당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읍리관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현관으로 들어서서 계단을 오르시던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닥을 내려다보시었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있

었는데 려관의 종업원들은 대리석을 려관의 바닥에 일매지게 깔것을 호프하게 여기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삼지연관 려관출입문바닥에 대리석으로 마감하였는데 오목 스키장들에 깔아놓은것과 같은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하겠다고, 삼지연관에는 눈이 내리므로 출입문바닥에 고무깔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려관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미끄러져 넘어질수 있다고, 이런데서 넘어지면 상하게 된다 고 하시었다.

2층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오락실을 한쪽의 구석진 곳에 꾸러놓는것을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구석진 곳에 오락실을 배치하였으니 누가 여기에 찾아왔겠는가고 하시면서 오락실을 복도중심부에 있는 호실을 내고 거기에 꾸러놓으라 하겠다고, 오락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눈에 잘 띄우는 곳에 꾸러야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에 들러 휴식도 할겸 오락을 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이의 세심한 손길은 미치지 않는데가 없었다.

오락실에 출입문을 달아놓

은것은 상식이 없는 표현이라고, 여기에는 출입문을 달지 말고 누구나 들어와 오락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락실에는 개구를 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삼지연시만이 아닌 미래과학자거리와 미림삼마루락부, 마시령스키장과 양덕은친문화휴양지를 비롯하여 온 나라의 곳곳, 건설물들의 요소소소에 속속들이 숨어있었다.

인민을 위한 리상과 목표를 높이 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기울어지는 그의 헌신과 로고속에 인민들의 생활은 윤택해지고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며 인민생활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욕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면모는 나날이 전변되고 인민의 꿈과 리상은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장혜련

그날은 38국제부녀절날이었다.

아침일찍부터 탁자우에 놓인 전화기에 불이 달렸다. 동주민들로부터 안해에게 걸려오는 명절축하인사였다. 그러나 안해는 집에 없었다. 동진로소의 사인지를 눈을 뜨자마자 주민세대들에게 내한 검병을 위해 집을 내왔던것이다. 부지런히 걸려오는 전화를 안해대신 내가 받았다.

집사람이 30년나머 동진로소에서 일하고있지만 요즘처럼 드라마틱하게 일한대는 드물다.

듣고말새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비루스전염병 예방을 위해 발걸음을 함께 하는 때여서 보건일군들이 해야 할 일은 더 막중한 것이다.

세계적범위에서 전파확대되어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COVID-19》전염병을 막기 위한 국가적인 조동급방역전에서 안해도 제일전에 선셈이다.

비상방역조치를 취해선 이래 안해는 휴식날, 명절날 따르없이 담당주민세대들에게 내한 검병, 검사사를 위해 분부하고있다.

전사회적, 전국각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조동급방

역조치들과 그에 따른 모든 사람들의 보조는 일치하다.

내가 며칠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체육지도교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찾았을 때였다.

출입문구에서 나는 궁전직원들에게서 발달상태를 검사하는 체온측정을 비롯하여 검병을 받고서야 청사안에 들어갈수 있었다. 평

업이라 하시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보장총력을 집중할데 대해 다시금 강조하셨다.

번개가 일면 우위가 울듯이 령도자의 호소에 전제인민이 일치단결로 화합하며 파사하는것이 공화국의 모습이다.

지난해 태풍13호가 조선반도에 엄습했을 때에도 태풍피해를 미리 막기 위

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세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낼수 있었다.

몇몇현 함북도 북부지역이 돌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에 하루빨리 가사를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

하나의 발걸음

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태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강력하고 철저하게 세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낼수 있었다.

몇몇현 함북도 북부지역이 돌풍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들이 당한 불행에 하루빨리 가사를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

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가슴부드러운 현실이다.

어느덧 주민세대들에 검병을 갖던 집사람이 돌아왔다.

꽃송이를 한아름 안고 들이신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비껴있었다.

자기들을 위해 지성을 다하는 의사진들에게 주민세대들에게 안겨준 감사의 꽃송이, 부녀절축하의 꽃다발이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또 한번 온 나라 인민이 령도자의 발걸음에 자신들의 발걸음을 맞추는가는 조국의 기상과 모습을 보았다.

리영철